국민의힘 대선 경선레이스 본격 개막

후보자 등록 첫 날 6명 등록
주자들 전국 각지서 민심 공략
윤석열 "충청의 피 자랑스럽다"
홍준표 '제주 라스베이거스'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경선 후보 등록 시작일인 30일 전국으로 흩어져 지역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개막에 맞춰 앞다퉈 지역 순회를 하면서 바닥 민심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충남과 세종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표심 구애에 나섰다. 그는 세종 선영을 참배하고 충남 논산에서 파평윤씨 종친회와 간담회를 하는 등 자신의 지역적 뿌리가 충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500년 조상의 고향인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침 민주당은 다음날인 31일 대전·충남 경선 투표 개시와 함께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제주를 방문했다. 4·3 평화공원과 6·25 참전 기념탑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홍 의원은 제주를 '카지노 프리' 지역으로 만들어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포스코 경쟁력의 열쇠"라며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수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을 만나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행보를 강화했다. 원 전 지사는 명동에서 충무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과학적 근거 없는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명동에서 원 전 지사와 함께 자영업자를 돕는 '품앗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최 전 원장은 한 언론단체가 국회 앞에서 주관하는 언론중재법 반대 필리버스터에도 참석해 "무엇이 그리 급하고 두려운지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이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성민 전 의원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와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을 마친 후보는 강성현 오승철 원희룡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가나다 순) 등 총 6명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박근혜' 괜히 나온 말 아냐" 민주, 윤석열 1호 공약 부동산 정책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두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 두 달 만에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3무(無)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3무'의 첫번째 근거로 윤 전 총장이 캠프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는커녕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윤 전 총장은 검사 시절 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날 발표한 정책은 큰 정부가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꼬집은 뒤 "철학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만 일관했다"며 "정해진 대본 외에 어떤 답변도 불가능한 윤 전 총장을 보면 시중에 '남자 박근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대권주자 진영도 공세에 가세했다.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총장이 1호 정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생각이 들었다"며 "공급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공약은) 세금은 낮추면서 원가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듣기 좋은 말만 남발하는 포퓰리즘"이라며 "결국 우리나라를 '기생충' 영화처럼 만들 것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류층과 원가 주택을 찾아 헤매는 하류층으로 우리 국민을 이분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족 문제가 잠잠할 때는 본인의 망언과 철학 부재가 리스크로 부상했다"며 "윤 후보가 두 달 만에 내놓은 1호 공약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인데, 현 정부 공격을 위해 무조건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김총리,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 강력 경고

문대통령과 주례회동
은행 대출 중단엔
"실수요자 피해보지 않도록"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불거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방안 등을 브리핑할 당시 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과잉 의전 지적이 일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두 사람은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 가계 부채 관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에 관해서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 윤희숙 맹비난…"면피용 사퇴쇼 그만…억울하면 탈당부터"

"의원직 정치적 판돈으로 사용 말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및 연루 의혹에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사퇴쇼'라고 재차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 사직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하면서 억울하면 탈당하고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 의원들 생각은 윤 의원이 '사퇴쇼'로 일컬어지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이 정정당당히 수사받고 싶으시다면 탈당하고 수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무엇을 위한 사퇴인지도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잉되고 감정적인 언행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수사를 통해 소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에 곤이와 아귀가 벌이는 도박판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유했다. 백 의원은 이어 "윤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배팅하고 있다"며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개별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 대상으로 지적된 후 당으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은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윤 의원 태도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뭘 잘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냐?"라고 물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직서 의결과 관련해) 의논해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우리는 일종의 사퇴쇼일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강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잘못한 사람이 사퇴해야지, 왜 억울한 사람이 사퇴하냐"며 의구심을 제기한 뒤 "(사퇴는) 선출 국회의원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윤 의원의 사퇴 선언은 "면피용 사퇴쇼"라고 단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아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사퇴쇼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송두환 인권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5시간만이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에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